

추운 겨울, 약속이 있어서 나가려는데 차량 배터리가 방전돼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A/S를 받고 가면 늦을 것 같아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정류장 앞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맞은편에서 버스가 들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다간 놓칠 것 같아 결국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버스에 올라탔는데 휴대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려오다가 차도에 떨어뜨린 것입니다. 결국 휴대폰은 지나가는 차들에 밟혀 못 쓰게 돼버렸습니다.

우리는 때로 눈앞에 있는 것들을 좇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돈을 좇다 건강을 잃고, 권력을 좇다 관계를 잃고, 명예를 좇다 가족의 사랑을 잃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더욱 소중하고 귀한 것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주님이 보여 주실 땅으로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조카 롯을 데리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 사래를 빼앗겼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는 일을 겪었습니다. 이 일로 아브람의 가족은 바로 왕에게 많은 재산을 얻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가정 사이에 풍족한 소유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믿음으로 출발한 그들의 동행은 더 이상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롯은 더 많은 이익을 좇아 풍요의 땅 소돔으로, 아브람은 척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헤브론으로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기 좋았던 소돔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아브람은 큰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는 고인의 삶과 뜻을 되새기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급하게 뛰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내가 향한 방향이 어디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눈앞의 이익과 욕심이 아니라, 고인이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주신 소중한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

사랑의 하나님, 지금 닥친 일들에만 몰두하다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3 추석

가정 · 추도 예배

 기 독 교 영등포중앙교회
대한감리회

담임목사 최 태 수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 163 ☎ 02) 2631-5721

예배순서

* 가족 중에서 한 분이 예배를 인도해 주십시오.

시작말씀 | 인도자

(가정예배시) 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추도예배시) 오늘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나라에 계신 故 000님(또는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추도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 송 | 다같이

(가정예배시) 559장 /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추도예배시) 421장 / 내가 예수 믿고서

기도 | 가족 중에서 한 분이 기도해 주십시오.

성경봉독 | 인도자

(가정예배시) 스바냐 3장 14-20절

(추도예배시) 창세기 13장 1-13절

말씀 | 인도자 (첨부된 설교문을 읽어주십시오.)

묵상기도 | 다같이

(가정예배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추도예배시) 고인을 생각하면서

찬 송 | 다같이

301장 /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죽기도문 | 다같이

설교문 가정예배용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습 3:14-20)

스바냐는 주전 7세기 후반, 남유다의 요시아왕 때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선대왕들의 우상숭배와 그에 따른 종교적 혼합주의뿐 아니라 정치, 사회적 문제들로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언자 스바냐는 하나님을 떠나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죄악의 길로 치닫는 유다 백성에게 '여호와와 나'의 임할 것을 선포했습니다. 또한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와 앗수르 등 주변 나라들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는 공의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질서를 따르지 않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스바냐를 통해 당신이 이루실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와 나이란,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인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기대하는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그 희망의 시작은 심판의 날로부터, 시련과 절망을 극복하고 살아남아 여호와를 섬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remnants)'란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아랫동아리를 비유한 말입니다. 그들은 악을 행치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자들이요(습 3:13), 깨끗하게 변화를 받아 여호와와 나 이름을 부르며 한마음으로 그를 섬길 사람들입니다(습 3:19~20).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앞에서 그들은 노래를 부르며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성 시온아, 노래하여라. 이스라엘아, 즐거이 외쳐라, 도성 예루살렘아, 마음껏 기뻐하며 즐거워하여라(14, 새번역)." 그들 가운데서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신 하나님 역시 그들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17).

오늘은 한가위입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린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때, 우리에게도 회복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여름 장마와 태풍을 견뎌내고 살아남은 곡식들처럼, 우리도 시련과 고통의 문제들을 이겨낸 신실한 믿음의 사람, 남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대하십니다.

기도

하나님, 한가위의 풍성함이 우리 신앙과 삶에도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신실한 믿음으로 삶을 지켜낸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